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본문: 요한복음 13 : 1 - 5]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6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도 한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밀알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밀의 껍질이 깨져야 생명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 사람이 되고, 옛자아가 깨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인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밀이 땅위에 있으면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밀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햇빛을 거절하고 캄캄한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협박할 때 ‘널 죽일거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희생과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거나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익만 취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고난을 겪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겠다는 말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결심한 사람에게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을때 항상 손해보는 길을 택하십시오. 이익이 있는 길을 택하면 복을 받습니다. 죽고자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나 역경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병과 저주를 이길 것입니다.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태양을 거부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밀이 땅안에 들어가면 껍질이 까집니다. 고난은 껍질이 깨어지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겸손해지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자존심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사람 성격이 못됐다.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껍질은 깨어져야 하고 고난은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기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는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한 애찬

요한복음 13장·17장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삶의 실천입니다.

첫째, 애찬입니다. 성도가 서로 애찬을 나누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들과 자주 만나십시오. 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애찬의 끝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배부르게 하려 함이지만 성도가 먹는 것은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사랑을 나눕니다.

성도의 삶에는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의 깊은 곳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먹는 대상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처럼 불편하고 고독하게 산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짓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찬 중에 있다는 것은 곧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서는 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죽음앞에서 쉴 때 제자를 불러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천명의 사람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환호성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열두명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 순은 열둘입니다. 순의 기본도 공동체의 기본도 열둘입니다. 온누리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열두개의 교회가 여럿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중요한 두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을 아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때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아는 것은 복입니다.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섬김’

예수님께서 밀알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만찬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저녁먹던 자리에서 행동을 하십니다. 저녁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에 키스를 하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듯이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의하면 집의 입구에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는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기 바로 전에 ‘치맛바람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자식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 중에는 화를 낸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높으냐’로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야를 떠다가 머리를 숙이고 발을 닦아줍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사람씩 발을 닦아주는 동안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라고 처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중요한 두가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진리요, 두 번째는 섬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의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겨 주신 모습은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멋있게, 정확하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영광을 버리고 천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습을 볼 수 있

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종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없는 이유는 손해를 보지 않고 발을 씻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고,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집단으로 만나지 않고 개인으로 만나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돈있고 실력과 권력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본분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크리스천의 귀한 삶의 본질은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이미 실패했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섬김을 받기 시작했다면 위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안에는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섭섭하다는 것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져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기쁨, 축복,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섬기십시오. 가장 낮은 사람도 섬겨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주의 일 받아들이는 것 '봉사'

봉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실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 위하여 가셨을 때 요한이 펄쩍뛰며 안된다고 했었지만 요한은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봉사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헌금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냥받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나를 월로 보십니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뭐가 됩니까”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신분을 내세우려 합니다. ‘날 월로 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것은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머리부터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발을 씻는다’는 말과 ‘목욕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욕은 구원이고 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을 할 필요가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섬김은 대상을 따지면 섬길 수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냐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까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르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생각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숙제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많은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싶은 원리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설교로 하지 않으시고 행위로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저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섬길 수 없는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소자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